人間發達硏究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94. Vol. 1, No. 1, *1－19*

발달심리학의 오늘과 내일

이 춘 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발달심리학은 1890년대에 시작된 아동연구운동, 1920년이후의 아동발달운동을 거쳐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발달심리학으로 불리는 발달과정을 거쳐왔다.

이제부터는 발달심리학의 제4기의 시대를 열고 사회적 발달이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될 것으로 White (1991)는 내다보았다. 원래 실용주의적 관심에서 출발한 아동심리학이 점점 실험 아동심리학이 되어 실용성이 배제되었으나, 이제 다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발달심리학이 공헌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응용발달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이 발달심리학의 새로운 분야로 출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앞으로 우리 발달심리학을 위한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핵심어 : 발달심리학 · 아동연구운동 · 아동발달운동 · 응용발달심리학 · 개입 · 발달정신병리학 · 다학제적 접근

발달심리학의 역사

발달심리학의 오늘을 정리해 보고 내일을 가늠해 보는 데에도 우리는 발달심리학이 시작된 역사적 시발점으로 돌아가서 그 발달 과정을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자녀를 키워왔고 또 자녀, 즉 아동에 대한 관심은 많았겠지만 학문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아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학문 발달의 고전적 모형에 따라 대학에서 시작하고 발달한 것이 아니라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일어난 사회적 변화에 그 기원이 있다. 정신이상은 악령의 작용 때문이 아니고 일종의 "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1792년 Pinel의 선언을 시작으로 장애 아동을 포함한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825년에 뉴욕시에 비행 아동을 위한 피난처가 생겼다. 그 이전 까지 비행아동을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구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때부터는 혜택을 못받은 아동,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으로 보기 시작했다. 정규교육의 가치가 인식되고 19세기 초에 의무교육이 도입되어, 점차 고아원, 장애 아동 시설이 증가하였고, 특히 청소년 법정은 이 사회를 휩쓸었던 아동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에 대한 이 시대의 분위기를 증언해 준다.

아동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에 관한 지식을 요구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관심은 다학제적이어서, 의

학, 교육, 사회 및 학문적인 전문가를 포함하였으며 다학제적 관심은 기초와 응용을 모두 포함하여 그 촛점이 비교적 복합적인 주제, 즉 청소년 범죄, 영양, 교육방법 등에 관한 것이었다.

발달심리학의 발달과정을 분명하게 구분짓기는 어렵지만 대개 3기로 구분된다 (White, 1991). 아동 연구 운동은 대개 1894년에서 1904년까지 매우 활발한 시기였고, 아동 발달 운동이 그 뒤를 잇는데 1920년대에서 1930년대가 전성기이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발달심리학의 시기로 보고, White는 지금이 제 4기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라고 보았다.

아동연구 운동(Child Study Movement)

아동연구라는 학문이 시작된 것은 과학의 발달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가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 현상이다. 초기의 과학적 아동 연구의 개척자들은 G. Stanley Hall, James Mark Baldwin, William T. Preyer 및 Alfred Binet 등이다. 아동에 관한 초기 연구는 교사, 임상가, 부모에 대한 충고를 포함하여 주제와 방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였다. 연구 주제는 주로 아동의 성장과 복지에 관한 것으로 비교적 복합적이고 실생활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런 주제는 어느 한 전문 분야로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학문적인 해결이 필요했다. 또한 이런 이유때문에 방법론적인 철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아동 연구가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이미지를 주지는 못한 것 같다. 1894년에서 1904년까지 Clark 대학교에서 G. Stanley Hall과 그의 제자들이 아동연구를 체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하였는데 이것이 아동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Darwin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인간 발달을 인류의 계통 발달 역사의 반복으로 보고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Hall과 그의 제자들은 초기에 질문지 방법으로 아동의 건강, 교육, 복지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하였는데 방법론적인 문제로 도전을 받게 되자 Hall은 아동연구에 흥미를 잃고 다른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다. 아동연구 운동으로 일반인들이 아동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Hall은 이런 지식이 새로운 연구의 기초가 되기를 원했으나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연구운동으로 인하여 여러 중요한 대학에 아동연구소가 설립될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Hall의 영향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아동 문제의 해결책을 추구하고 교육자, 사회사업가, 특수교육 교사, 유아교육 교사 등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다. 많은 연구 논문들은 제한된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충고를 하거나 비교적 광범위한 결론을 끌어내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아동연구 운동은 더 확실한 경험적 학문이 되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아동발달 운동(Child Development Movement)

1차대전 후 아동문제가 일반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전쟁고아, 징병검사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건강과 문맹 문제 등에 의해 체계적인 아동연구로 질병과 문맹을 예방할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다.

20세기 초의 40년 동안은 아동발달학이 상당히 발전하고 이 학문의 정체성이 확고해진 시기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17년에 Iowa 대학교에 아동 복지 연구소(the Iowa Child Welfare Research Station)가 Correy Bussey Hillis의 주도로 설립된 것이다. 그녀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지식이 쌓이면 수많은 아동 문제와 가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밖에 개인 및 지역의 재정적 지원과 Rockefeller 재단의 지원으로 미국내 22개의 대학교에 아동 발달 연구소가

설립되어 아동발달과 복지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 California, Columbia(1924), Minnesota (1925), Toronto, Yale(1928), Ohio 대학교 등에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Rockefeller 재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성들이 대학에서 자리잡기가 어렵자, 아동 연구 기관에서 아동 양육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도록 지원 장려하고 이들의 부모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개혁을 성취하려고 했다 (White, 1991).

1920년대와 1930년대가 다학제적 연구소에서 아동 발달을 연구하는 운동의 절정기였다. 대학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1930년대에 아동발달이 심리학의 한 분야가 되었다.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가 1934년 창설되고, 이 연구회의 저널로 Child Development Abstracts and Bibliography와 Child Development가 창간되기 시작하였다.

John B. Watson은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아동을 연구하고, Gesell이 영화로 영아발달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Terman이 천재아동들을 장기종단적으로 연구하였다. Lewis Terman의 Stanford-Binet 검사 표준화 제작을 가져온 심리 검사 운동과 그에 따른 통계 기술의 발달은 이 분야의 방법론을 발달시켰다. 그러나 이 때 미국에서의 분위기는 이론에는 관심이 적고, 측정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어서 아동 성장의 규준을 설정하고, 장기 종단 연구가 Berkely, Fels 및 Stanford 대학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시작되었다. 1920년대 Werner, Piaget, Vygotsky 등이 아동 발달에 대한 이론을 제안했으나 미국인들은 이런 이론가를 한동안 무시하는 분위기였다. 이들이 모두 유럽사람들이고 철학자들이고 사변적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그 이면에는 미국 사람들이 유럽의 영향을 벗어나고 철학에서 심리학을 분리하여 심리학을 과학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40여년 동안에 Lewin, Freud, Werner, Piaget, Dallard, Miller, Mohwer, Sears, Whiting 등의 노력으로 심리학의 과학적 이론 틀이 구성되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연구자들은 군입대로 흩어지고 남은 교수들이 교수부담이 많아져서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지원이 감소하면서 아동발달 운동은 쇠퇴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White, 1991).

아동발달에서 발달심리학으로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동발달 분야가 활발하게 성장했다. 초창기와 같이 이 분야는 다학제적 특성이 유지되었고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되었으며, 기초와 응용 주제에 고루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차대전 이후부터 아동 발달은 새로운 관점을 취하기 시작했다. 부모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점점 심리학의 주류로 편입되었다. 발달연구가들이 심리학과의 교수가 되었고,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Harvard와 Brown 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대학교에 발달 심리학 Ph. D. 과정이 개설되었다.

발달에 관한 이론과 연구는 점점 실험심리학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아동 발달 대신에 발달 심리학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 분야가 이제 과학의 서열에 끼게 되고 이 학문의 정체성에서 변화가 일기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실험실 중심의 실험연구가 발달적 주제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여 결국 실험주의가 발달 심리학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White, 1991).

실험주의(experimentalism)의 등장으로, 실험실 중심연구를 좋은 연구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가 되고 실험실 연구 결과는 더 기초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연구 주제에서도, 실험실 중심 연구자들은 주의, 기억, 애착, 의존성과 같은 일반적 과정(general process)에 관심을 두었다. 결국 실험실 중심 연구자들은 주로 과정

연구를 하였고, 상황요인이나 환경 요인을 설명하는 특정지식의 역할은 과소평가 하였다. 연구자들이 점점 더 단순한 과정 연구를 선택함에 따라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들고 실험하기 어려운 더 복합적인 문제는 점차 다루지 않게 되었다.

또한 실험주의는 엄격한 방법론적 기준 때문에 아동 발달과 관련된 인류학, 소아과학, 사회학, 사회사업,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과 같은 분야와 스스로 분리되고 고립되는 경향을 낳게 되었다. 결국 대부분의 에너지를 방법론의 엄격성과 세련화에만 쏟은 셈이다.

학문적 고립은 전문적 저널의 편집위원회의 구성에서도 볼 수 있다. Super(1982)에 의하면 Child Development의 초창기 10년간에는 편집위원들의 구성이 심리학자들과 다른 사회과학자들로 골고루 구성되었으나, 1960년 초에 접어들면서 거의 전부가 심리학자들만으로 구성되었다. 자연스럽게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실험이 용이한 단순한 과정 연구에 집중되었다.

1960년대에 발달심리학의 연구가 Piaget에 집중되었으나 독점된 것은 아니다(White, 1991). 한편으로는 의존성 발달에 관한 인과분석 연구, Sears와 그의 동료들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Barker, Wright와 그의 동료들은 아동 발달의 생태학적 연구, 행동주의 이론이 중심이 된 실험 아동 심리학, Werner의 비교발달적 접근 등의 연구들이 Piaget 연구와 함께 발달심리학에서 주요 연구주제들이었다. 또 이 시기에 일부 발달 심리학자들은 정부주도의 아동교육 프로그램인 Head Start Program의 평가와 Early Intervention program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사회를 개선시키려는 사회정책분야도 발달심리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실용주의의 재등장

오늘날 아동심리학은 아동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정책과 아동 복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설정하면서, 실용적인 입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초기 아동 심리학의 입장으로 돌아온 것이지만 똑같은 원점 상태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발달심리학 연구에서 발견된 지식은 이제 실제 문제에 응용할 수 있을 만큼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기초 연구 결과를 응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연구 자체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발달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이론을 검증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현 실생활에서의 문제는 충분하고 완전한 지식이 축적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산적해가고 있기 때문에 응용연구와 개입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미국심리학회(APA) 저널인 American Psychologist 1989년의 Special Issue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 Knowledge Base, Research Agenda, and Social Policy Application, vol. 44 No. 2)에 실린 주제를 10년 전과 비교하여 그 변화를 보면 매우 흥미롭다. 10년이 지나도 공통적인 주제는 학습, 인지, 정서발달, 아동기 정신병리, 읽기, 특수교육, 사회적 일탈, 어머니의 취업, 조기 교육, 이혼 등이다. 이 주제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주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 십대임신, 문화와 정체성에 관한 주제는 십년 전보다 증가하였고 환경 경험이 발달에 주는 영향의 문제, 아동과 컴퓨터, 아동과 십대의 약물 복용, 사고(accident), 학습장애 등은 10년 전에는 없던 주제들이다. 따라서 10년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연구주제를 사회정책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 문제에 직접 관련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부모와 교육자, 정책

결정자들이 아동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상 생활의 결정에 우리의 지식을 응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Horowitz & Obrien, 1989).

응용발달심리학의 출현

실험 아동 심리학은 발달심리학의 발달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영아의 지각과 인지발달의 본질에 관한 이해, Piaget이론의 공헌과 한계의 검증, 애착이론의 검증, 인지 기술의 본질과 발달 등이 모두 실험실 중심연구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중심연구의 타당성에 의문을 던지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영역-특수 기술(domain-specific skill)의 역할과 실험실 연구결과의 맥락과 상황에 따른 일반화 가능성의 검증 문제가 그것이다. 결국 발달에 관한 영역 특수 지식과 맥락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실험실 중심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Morrison, Lord & Keating, 1984). 초창기 아동 연구자들은 아동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과학적 아동 연구를 장려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점점 실험적 절차에 치중해서 단순한 문제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복합적인 실제 문제 영역에서 벗어나 학제간 대화도 줄어들게 되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론과 다학제적 관점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Fisher와 Lerner(1994)는 응용발달심리학 분야의 성립을 Irving Siegel의 공헌으로 보았다. 이론과 경험연구를 통해서 그는 발달과학을 실생활문제에 응용하는데 있어서 모델이 되었고, 1980년에 창간된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의 편집인으로서 이 분야의 성립을 도왔다.

Irving E. Siegel과 Rodney R. Cocking이 "편집자의 메시지"에서 이 새로운 저널을 발달심리학의 행동 과학적 연구를 사회현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데 관련되는 문제와 개념적, 방법론적, 정책적 문제를 제시하는 토론의 광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저널은 평생발달적 다학제적 관점을 사회문제에까지 확장하여 발달 연구 결과를 응용하는 수준급의 논문들이 실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Edward Zigler(1980)는 창간축사(Welcoming a New Journal)에서 이 저널이 창간된 것은 응용발달심리학이 전문적인 분야로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응용연구와 기초연구의 상호관련성

Zigler는 기초와 응용 연구를 정의하기를 응용연구는 그 사회의 그 당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한 연구이고 기초연구는 우리자신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한 연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기초와 응용연구에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주제도 있고 그렇지 못한 주제도 있다.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는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기초연구가 응용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응용연구도 기본적 지식체계에 도움이 된다. 발달심리학은 이미 많은 이론과 경험적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응용발달심리학은 발달이론을 현장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며 그 결과 발달이론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응용연구가 발달의 기초연구와 구별되기도 어렵다.

비록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응용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심리적 문제는 복합적인 수준 그대로 검증되어야 한다. 실험실 연구에서처럼 복합 현상을

단순한 구성요소로 분석하면 그 복합 현상이 그대로 이해될 수가 없다. 복합적인 문제에는 또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Kibbutz연구는 Kibbutz를 사회적 실험 및 육아 실험실로 본 사회화 관습에 대한 국가적 실험이다. 이 연구의 일부는 Kibbutz가 건강하고 유능한 사회성원을 기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용연구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또한 아동발달에 대한 기초지식을 보태는 데도 기여하였다. Kibbutz의 양육관습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성격발달, 성역할발달, 도덕적 태도 등에 관한 응용연구가 될 것이다. 기초연구로서 양육법에 따른 자기개념의 발달, 정신 및 운동능력, 부모-자녀 관계 등에 관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Kibbutz는 정신역동과 인류학적 발달이론의 검증장소가 되었다. Beit-Hallahmi와 Rad-in(1977)은 Kibbutz 연구 논문들을 개관하면서 Kibbutz는 역사적 변화로 만들어진 자연적 실험실이라고 했다. 이런 경우는 응용연구와 실험연구를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Sarason(1974)은 사회과학자들이 대학에만 안주하지 말고 사회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데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정책이란 바로 쥐의 식사시간을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종의 개입(intervention)이고 개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사회과학자들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Ziegler(1980)는 개입이나 정책의 실행은 반드시 그 예산의 3~5% 정도를 평가에 할당하여 지속적인 개입과 정책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험적 프로그램 평가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전문 학술지들이 거의 없었으나 이제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가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응용적 관점을 Morrison 등(1984)은 세 가지로 분류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사회나 인지발달에서 맥락(context)의 역할에 대한 기초연구가 있고, 중간에는 독서·수학·탁아소 같은 실생활 과제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있으며, 다른 한쪽 끝에는 측정과 개입 기술의 본질과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 연구나 비전형 아동의 발달을 검증하는 연구가 있다. 주제와 활동이 다르긴 하지만 일상생활의 실제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공통적인 관심이다.

응용발달심리학의 활동범위는 지식을 실생활문제에 적용해서 얻은 결과를 다시 기본지식에 보태는 것의 연속선 상에 있다. 이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과학적 이론은 자연스런 맥락에서 성장과 발달에 응용하는 연구; (2) 사회적 현상에 대한 발달적 관계에 대한 연구; (3) 발달적 측정도구의 제작과 이용; (4) 발달적 개입의 계획과 평가, 강연을 통해 발달지식을 개인과 집단에 전파하는 일이다 (Fisher & Lener, 1994).

평생발달적 관점

응용발달심리학에도 평생발달적 맥락적 관점이 도입되었고 그 역사는 오래되었다. 18세기(Tetens, 1777), 19세기(Carus, 1808; Quetelet, 1842; Sanford, 1902; Hall, 1922; Hollingworth, 1927; Buhler, 1933; Pressey, Janney, & Kuhlen, 1939; Werner, 1948; Havighurst, 1948, Erickson, 1950)에 이미 여러 학자들이 주장해왔다(Baltes, 1983). 이들 모두 발달적 변화는 평생동안에 다른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에 동의한다(Dixon & Lerner, 1988).

역사적으로 여러 선구자들이 있지만 평생발달적 관점은 확률적 점성설(Gottlieb, 1983; Schneirla, 1957), 혹은 발달 맥락적(Lerner & Kauffman, 1985) 관점을 근거로 Baltes(1987), Brim & Kagan(1986), Elder & Featherman

(1985), Lerner(1984), Nesselroade(1988), Schaie(1965, 1979) 및 Riley(1979) 등의 이론과 연구를 통해 전개되었다. 이 평생발달적 관점은 발달적 변화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의 통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변화에서 개인과 맥락과정의 역할이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생발달 견해의 독특한 점은 발달을 유기체와 맥락의 상호거래와, 다중방향성 및 획득과 상실의 통합(gain-loss synthesis)으로 보고, 가소성(plasticity), 맥락과 역사성, 조직화 수준 등의 개념들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Baltes, 1987). 뿐만 아니라 이는 발달적 변화를 생물학적, 심리 및 가정적 분석수준에서 사회문화 및 역사적 분석수준에 이르기까지의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개념들은 개인과,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맥락간의 상호 결정적 상호작용이 인간발달을 특징짓는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Lerner, 1987).

전문가 훈련

한 분야의 발전은 유능한 전문가의 양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응용발달심리학 전문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직업이므로, 스스로 일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도 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 훈련이 이 분야 발달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평생발달적 입장에서 발달적 개입을 통해 개인의 최적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미국 Pensylvania State University의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에 응용발달심리학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이 학과에서는 개인발달, 가족발달 및 인간발달적 개입의 세 영역의 연구와 학습에 중점을 두었다(Birkel, Lerner & Smyer, 1989). Fordham University는 1989년에 심리학과의 발달 프로그램의 한 전공분야로 응용발달심리학 박사과정을 개설했다. 이 전공의 개설은 교수진과 학생들이 실생활의 맥락에서 발달을 연구하고, 발달 심리학 방법과 지식을 적용하여 평생발달을 지원하려 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Fisher, Rau & Colapietra, 1993).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에서는 평생발달적 관점과 맥락주의 관점에서 인간발달연구와 개입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Lerner & Miller, 1993). 이 프로그램은 박사학위를 받고 지역사회현장에서 일하는 소장학자들과 학위는 없지만 청소년과 가족문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와 현장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응용발달심리학 박사과정의 교육과정 문제는 미국 심리학회 차원의 공통 관심사가 되어서 1991년 10월에 Fordham University에서 "The National Conference on Graduate Education in the Application of Developmental Science Across the Life Span"이란 주제의 conference가 있었다(Fisher 등, 1993). 이 conference가 다학제적, 다세대적, 다문화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지는 National Task Force on Applied Development Science의 참여 및 후원 단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conference에 참여한 단체는 미국 심리학회 산하 발달심리학 분과, 성인발달과 노년 분과, 아동, 청년 가족 서비스 분과, 미국 노년 학회, 국제 영아 연구학회, 국립 흑인아동 발달연구소, 국립 가족관계 협의회, 청소년 연구회, 아동 발달 연구회 등이다. 응용발달심리학을 이제 응용발달과학으로 부르며, 다양한 학문분야, 다양한 세대, 문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분야의 장래를 설계했다. 이 conference의 주제는 응용발달과학의 활동범위, 대학원 교과과정과 현장실습의 모델에 관한 것이고 그 결과가 보고되었다 (Fisher 등, 1993).

발달 정신병리학의 출현

발달 정신병리학이 응용발달심리학에 포함되지만 발달심리학내의 독립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발달심리학을 정신병리학과 정신의학 연구와 관련시킨 학자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 Sroufe와 Rutter(1984)는 특히 그 중에서도, Hartmann (1950)의 "정신분석과 발달심리학", Anthony (1956)의 "아동정신 의학"에 대한 Jean Piaget의 의미, Walff(1960)의 "Jean Piaget의 발달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을 들고 있다. Cicchetti(1993)는 Heinz Werner(1948)의 "지능발달의 비교심리학"과 "아동정신의학의 탐색" (Anthony(Ed), 1975)이란 책에서 Piaget가 쓴 서문을 들고 있다. Anna Freud도 역시 많은 공헌을 했으며, 이들 모두 장애행동을 이해하는 데 발달적 관점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Gil Noam(1991)은 새로 나타난 발달 정신병리학이 Freud시대 이래로 정상발달과 정신병리학 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데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았다.

1984년 'Child Development'가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에 관한 특집 판을 내고, Cicchetti가 쓴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라는 논문은 이 분야의 출생을 예고한 셈이다. 1987년 10월에는 Rochester 대학교에서 제 1회 Rochester Conference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가 개최되었고, Cicchetti, Sroufe, Sameroff, Weisz, Masten 등이 주도적인 학자들이었다. 이 conference의 결과가 1989년에 The Emergence of a Discipline;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icchetti (Ed)]로 출판되었으며, 거의 해마다 개최되는 이 conference의 결과를 묶어 현재 6권까지 출판되었다.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창간호(1980)의 환영사를 쓴 Zigler(1989)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 conference를 이 분야의 출생신고로 보고 축하하면서, 마치 Minnesota Symposium이 아동심리학 발달에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또한 이 분야의 정립을 위한 Cicchetti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1989년에 Cicchetti가 편집인이 되어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라는 저널이 창간되었고, 이 저널의 창간으로 이 분야가 전문가들에게 독립된 분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달 정신병리학의 정의

발달 정신병리학이란 무엇인가? 정신의학,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과 아동임상심리학, 아동정신의학과 발달적 정신병리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발달 정신병리학을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Sroufe(1984)는 부적응 행동의 기원(origin)과 과정(process)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시작 연령이 언제든지, 원인이 무엇이든지, 나타난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발달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장애 행동의 기원과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 정신병리학은 정상 발달에 대한 지식이 정상에서 벗어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병리현상 연구에서 얻은 지식이 정상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달 정신병리학자들은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이 장애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조건에서도 장애로 발전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관심이 있다. 발달 정신병리학은 유해조건에 노출되어도 잘 적응해 가는 경로를 밝혀내야 하고 위험요인의 궁극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메카니즘과 과정을 밝혀야 한다.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Cicchetti(1993)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발달 정신병리학은 행동에 대한 개체 발생적, 생화

학적,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 기능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차, 적응행동 및 부적응 행동의 연속성, 그리고 동일한 발달적 결과에 이르는 다른 경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발달 정신병리학과 인접분야와의 관계

Sroufe와 Rutter(1984)가 정리한 인접학문 분야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 임상심리학 및 아동정신의학과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발달 정신병리학에서는 아동정신병리, 정상행동과 아동정신 병리학과의 관계,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야 임상적으로 나타난 장애행동의 기원에 대해서 똑같이 관심이 있다. 차별적 진단, 치료기법, 예후 등은 발달 정신병리학에서는 오히려 이차적인 관심이고 일차적인 관심은 장애행동의 기원과 과정, 연령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 전조 증상과 후유증, 정상행동과의 관계 등에 그 촛점을 두고 있다.

이상심리학 및 정신의학과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발달 정신병리학에서는 부적응 행동의 현상과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성공적 적응의 측면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능력과 무능력, 상처받는 것과 상처에 견디는 능력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risk research는 여러 면에서 전형적 발달정신병리학이다. 장기종단적 risk research에서는 risk 피험자들과 통제집단의 여러 가지 다른 발달과정뿐 아니라 특히 risk 피험자들 중 장애로 발달되는 사람과 장애로 발달되지 않는 사람의 발달을 연구한다.

발달심리학과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렇다고 발달 정신병리학이 발달심리학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발달심리학은 정상발달의 보편적 과정에 관심이 있어 왔다. 발달심리학은 어떤 능력이 출현하는 연령범위, 순서 뿐 아니라 발달하면서 특정 능력의 표현이 변하는지와 특정 능력에 미치는 맥락 효과의 영향의 변화, 다른 능력들과 그 능력과의 조직화가 변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Collins, 1982).

발달심리학의 기초연구는 발달 정신병리학 연구의 발판을 제공해 준다. 일단 주어진 발달시기에 발달과업(salient issues)이 정의되면 이 발달과업에 관련된 개인의 적응 형태가 검증될 수 있다. 이때 발달과업에서의 실패 및 비전형적인 유형의 적응 문제는 발달 정신병리학의 영역이다. 즉 정상 발달의 원리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과 일탈된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다. 비전형적 발달연구에서도 정상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발달적 관점

발달 정신병리학에서는 장애를 발달상의 일탈(developmental deviation)로 본다. 그러므로 주요관심은 발달의 정상경로(pathway)를 정의·추적·이해하는 것이며, 정상경로로부터 의미있는 일탈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며, 비전형적인 발달과정을 밟을 때 일어나는 행동의 변환과정을 알아보고, 주어진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들과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다. 발달 정신병리학자들은 일관성 있게 장애로 가는 경로를 밟아 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정상적 발달경로에서 벗어났다가 결국 정상발달을 회복하고 적절한 적응을 성취한 사람들과 발달적 일탈로 이끄는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다. 초기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는 사람들과 계속 부적응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risk research의 요체이다. 이런 비교 연구의 결과는 예방과 개입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Sroufe, 1993).

그러므로 발달경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결정

적이다.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 동일한 발달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어느 시기의 동일한 행동 특성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 다른 발달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발달적 관점을 명확히 하게 하는 마지막 질문들은 이후에 부적응을 초래할 문제가 초기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에 관한 관심이다. 초기의 유형은 일련의 변형을 거쳐서 원래의 형식과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지만 형식적으로는 전혀 동일하지 않는 결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후에 어떻게 병리가 될 전조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영아나 유아가 ADHD, 품행장애, 청년기 우울증 혹은 성인 정신분열증으로 가는 경로에 이미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적응의 유형이 있는가? 초기의 경로가 어떠한 융통성을 보이며 또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 여러 가지 장애의 경로들이 언제 확실한 통로로 정착되는가? 형식적 장애의 출현없이 어떤 준거로, 어떤 경로가 의미있는 발달적 일탈을 나타낸다고 결정할 수 있는가? 발달적 일탈은 겉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미래의 장애와 연합된 발달적 일탈의 초기 발견은 일차적 예방과 초기 개입에 결정적이다.

이와 같은 발달 정신병리학 분야가 발달심리학적 관점에 이상적으로는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이 과연 어느 정도나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발달심리학자와 발달 정신병리학자간의 상호 노력에 달려있을 것이다.

예방과 개입의 전망

발달 정신병리학의 관점에서 보는 예방과 개입의 문제를 Sroufe과 Rutter(1984)가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개념화했다. "여러 연령시기에 개인을 위험한 방향으로 끌어당기거나,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개인을 끌어당기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함으로써 발달현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높은 위험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장애로 발전된 사람을 대상으로 발달적 관점에서 나온 예방적 개입은 발달적 일탈을 검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예방과 개입의 전략은 정상발달원리를 근거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장래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Cicchetti, Toth & Bash, 1988), 정신병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정상아동들의 발달과업에 대한 지식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비전형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경로에 대한 연구는 정상발달이론에 도전하고, 고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발달심리학과 다학제적 접근

발달의 기초연구에서의 다학제적 접근

발달심리학은 발전 초기부터 다학제적이었다. 그러나 발달심리학이 실험심리학이 되면서 주변 학문에서 스스로 고립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어느 한 분야의 지식으로 인간의 발달현상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관련 분야를 모두 통달한 전문가를 훈련시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접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점차 더 절실해지고 있다. 실제로 발달심리학에서 다학제적 접근의 현황과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생물학, 의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및 법률, 교육, 신경과학 등의 여러 학문분야가 인간 발달에 공헌하여 왔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인간발달의 보편성에 도전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깨닫게 했고, 동물행동학과 생물학자들은 행동과 감정양식의 근원을 보여주고 발달

심리학 연구에 생태학적 관점을 도입하게 했다. 사회사학자들과 전 생애 발달론자들은 사회적 역사적 영향을 주목하게 했으며, 여성학자들은 성에 대한 연구 방법과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가족 이론가들은 개별적 아동이 아닌 조직적 단위인 가족의 체계적 속성에 주목했다. 아동학대, 이혼에서 오는 자녀 양육권 문제, 청소년 비행과 범죄, 소년범의 보호관찰, 십대의 임신과 출산, 십대부모, 청소년 약물 남용, 존속폭행 등의 문제는 인간발달학적 관점에서 법률을, 법률적 관점에서 인간발달학을 검토하게 했다.

현대에는 경쟁적인 인간발달의 이론이나 모델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 한 이론이나 모델이 다른 것으로 대치되기보다는 통합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론에서의 multiplicity가 이 시대적 용어이다.

발달심리학의 다학제적 접근은 아동 심리학의 경계를 넘어 여러 학제에서 나온 방법과 이론을 인간발달의 기본과정을 이해하는 데 채용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제와 아이디어를 다른 학제에서 얻어올 수 있다.

그러나 인류학과 문화비교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아동의 주변 환경의 다양성을 깨닫게 했지만 아동 발달의 주류로 통합되지는 못했다. 그 이유를 LeVine(1989)은 네 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아동 발달학자들이 서양의 백인 중류사회 아동의 조건을 인간 발달의 최적 조건으로 보고 이 조건에서 벗어난 것은 정상아동발달을 위한 또 다른 대안적 조건이 아니라 결함이나 박탈의 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비서구권에서 나온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과소평가 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문화비교연구에서 나온 새로운 발달 유형을 이미 알려진 미국 국내연구의 결함이나 일탈적인 사례로 본다. 두 번째는 인간 행동 발달의 주요 경향이 미리 정해진 순서와 계획에 따라 성숙된다는 가정 때문이다. 정상 범위 안의 환경의 변화는 이 유형이 표현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정신기능의 성숙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런 입장이 Chomsky의 언어발달 모형, Piaget의 인지발달개념, Bowlby의 애착이론이다. 세 번째는 방법론의 철저성 때문이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실험심리학적 방법론에 매달렸기 때문에 아동 양육에 대한 민속적 자료,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 관찰, 대규모의 인구학적 조사연구에서 나온 정보를 발달심리학의 과학적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연구 가정들이 최근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일본에서 나온 연구는 미국 중산층이 최적의 환경조건이라는 가정을 흔들리게 했다. 인지발달이 성숙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것은 아니나 Piaget의 인지발달 모델은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문화권에서 동일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Dasen, 1977). 비서구권에서도 발달연구를 실험실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과학적 준거에 맞게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도 한다. 서구 연구만이 과학적 기준에 맞는 체계적으로 통제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비서구 문화권의 연구를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아동발달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동발달을 생각할 때 문화비교연구의 혁명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문화 비교적인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는 발달모형은 머지 않아 금세기 안에 설정될 것이다. 발달이론의 보편성 문제는 문화비교연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발달 속도는 혁명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이 될 것이다.

Child Development Abstracts and Bibliography에 수록된 논문의 제목을 1960년대 초기와 1990년대 초기를 비교한 것이 표 1에 정리되어 있다(Reese, 1993).

표 1. Child Development Abstracts and Bibliography에 실린 논문제목의 배분율

년도	심리학	생물학	정신의학과 정신건강	교육	역사/이론/방법론
1960	44	37	13	6	–
1961	42	38	13	7	–
1962	43	35	14	10	–
1990	56	10	18	12	4
1991	58	8	20	10	4
1992	52	7	21	8	12

위의 표를 보면 심리학과 정신 건강에 관한 논문의 비율은 증가했으나 교육 분야는 거의 변화가 없고 생물학 분야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역사, 이론, 방법론 분야는 1977년에 포함된 것이다.

Child Development Abstracts and Bibliography는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에서 나오는 간행물이고 이 Society는 1933년에 다학제적 모임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다학제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 백분율은 아동심리학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동 심리학이 얼마나 다학제적일 수 있는가는 잘 알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 Society가 다학제적이라는 것을 이 Abstracts에 실리는 전문 잡지의 범위를 보면 알 수 있다. 1962년과 1963년 판은 130개 잡지, 1989년 판은 200개 잡지, 1991년은 250개의 잡지에 실린 논문 요약이 정기적으로 수록되고 있다. 이 Society의 다학제성은 1992년도 회장 후보에 사회학자, 동물행동학자, 소아과 의사가 각각 1명씩 3명이 지명되었고 그 Society를 심리학이 주도하고 있으나 심리학자는 없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논문 제목에서 나타난 변화를 보면 심리학 이외의 분야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정신건강과 심리학 분야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학제성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발달심리학의 기초연구에서 다학제적 접근은 거의 이상으로 보고 있다. 누구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것 같다. Reese(1993)는 "다학제적 연구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언까지 했다.

응용심리학에서의 다학제적 접근

응용심리학은 사회발달과 인지발달에서 context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자들과 독서, 수학, 유아원 문제 같은 실생활과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비전형적인 아동의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 및 측정과 개입기술의 본질과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연구가들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context와 실생활 과제가 중심이 된다. 응용심리학에서 다학제적 접근은 응용심리학자 훈련 프로그램과 연구 및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실생활 문제를 발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려면 어느 한 분야만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읽기 장애, 읽기 능력 습득 및 학교에서의 인지능력에 관한 이해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실험 및 비교심리학자, 교육자, 언어학자, 소아과의사, 신경학자, 사회사업자 및 부모들의 통찰을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 정신병리학과 다학제적 접근

발달 정신병리학은 그 성질상 원래 다학제적이

다. 학제간의 협력연구와 학제내 영역 간 협력연구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원 과정에서 심리학내에서 각 영역의 교수와 학생들이 상호작용해야 하고 이것은 신경과학, 인지과학, 유전학 등의 인접과학과 인접과학간의 상호작용의 새로운 기운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심리학과 심리학 이외의 연구분야 즉 신경과학, 역학분야, 신경생리학, 유전학 분야의 학자들간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발달심리학의 전망과 과제

앞으로 발달심리학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 것인가를 내다보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조짐을 읽고,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몇 가지만 내다보려고 한다.

발달심리학에서 사회성 발달의 비중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심리학에서 실험이 용이한 감각, 지각, 학습, 인지 등의 영역이 실험이 어려운 동기와 성격의 영역보다 더 많이 연구된 것은 사실이다. 방법론의 엄격성 때문에 기초심리학에서는 실험, 인지분야가 강조되었고, 임상 심리학에서는 인지보다 정서가 강조되었다. 이제 기초심리학에서도 동기와 정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발달심리학에서도 이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발달심리학자들은 실험실이 아니라 자연, 사회, 문화 속에서 살고 성장하는 인간을 기술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발달심리학의 이론적 중심은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자연스런 상황에서 사회적 발달을 연구하게 될 것으로 본다는 White(1991)의 주장도 있다.

발달심리학 방법론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실험적 방법에 얽매여 실험하기 어려운 문제는 연구주제에서 제외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나온 연구결과는 맥락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실험법 외에 사례연구, 자연관찰, 참여관찰, 집단과정 연구 등의 연구방법이 발달연구에서 많이 사용될 것이다.

발달심리학은 실용 및 응용적 측면이 강조될 것이다. 실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 및 응용연구가 점점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읽기, 아동의 증언, 청소년 약물, 비행, 이상행동 등,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과 개입, 치료의 영역에 발달심리학자들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의 발달심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달심리학을 위한 발달심리학자들의 과제를 생각해 보자.

한국의 발달심리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발달심리학은 아동에서 노인까지 모두가 자기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힘을 최대한으로 신장하는 것이다. 개인이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개인의 불행 뿐 아니라 국가의 손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의 발달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며 변화되는가 하는 기본 과정을 밝혀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발달심리학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1)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구분이 밝혀져야 한다. 심리학이 물리학과 같이 되려고 노력한 것과 같이 발달심리학도 실험심리학과 같이 되려고 실증주의적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실증적인 자료는 오히려 특정 시간과 장소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을지 모르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연구자료라는 비판

이 있다. 발달심리학이 사회역사적인 관점을 도입할 때 보편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인지적 학습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Vygotsky의 관점은 학습을 비사회적이고 비맥락적으로 본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학습이론의 바람직한 방향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서구에서 나온 발달이론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재검토하여 우리 문화에 맞는 이론을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달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즉 외국의 이론과 경험 연구의 모델을 반복하는 연구도 필요하고, 거기서 나온 연구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달을 설명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단계의 발달과업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정상적 발달수준을 평가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이상발달을 발달의 일탈로 보면 발달과업의 실패를 적시에 알아내고, 적절한 발달과 최적발달을 돕는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달과업은 각 연령시기에 각 영역별로 규정되어야 하고 한 영역의 실패가 다른 영역의 발달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도 필요하다.

3) 인간발달학회, 발달심리학회 혹은 관련 대학은 부모교육, 현장 실무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널리 보급해야 한다. 일반 부모든 현장 실무자든 간에 최근까지 발달심리학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4) 인간 발달관계 정책의 개발과 정책의 효과 연구에 발달 심리학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영유아 보호법, 자녀에 대한 친권 문제, 아동 학대, TV폭력, 전자게임, 탁아, 정신지체, 영재교육, 학습장애, 특수교육, 약물남용, 이혼, 미혼부모, 보호관찰제, 존속폭행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없이 많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결국 국가의 장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학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학회차원에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까지의 발달심리학 연구결과를 관련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의 기능을 못하는 것도 개인과 국가의 손실이지만 우수한 사람이 그 우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개인과 국가의 손실이다. 그리고 특수능력자의 지원문제도 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 조정위원회에 인간발달학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영화, 책, 만화, 비디오, TV 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를 근거로 해서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기 입학이나 월반 및 유급 문제를 결정할 때도 발달심리학자들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최적의 발달을 도모하는 사회운동에 인간발달학 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 도덕회복운동, 도덕성 기르기 운동 등에도 발달심리학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6)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발달심리학의 분야는 정상발달과 이상발달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상과 이상을 설명하는 연구와 더불어 이를 적용한 개입, 예방 치료 또한 발달심리학자들의 과제이다. 발달심리학회는 1994년부터 발달심리전문가와 발달심리사 자격증제도를 구체화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응당한 자격 및 시험에 통과하고, 정해진 수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주고 있다. 더 내실있고 능력있는 자격자와 연구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발달심리학자들의 공동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응용발달 심리학과 발달 정신병리학의 연구가 발달심리학의 테두리 안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서의 교육과정 개발에 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7) 인간발달학회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발달심리학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발달 과학(developmental science)이라는 이름에 맞는 발달 관계학자들의 실제적 연계와 공동연구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8) 인간발달학회의 다학제적 접근은 세미나, 심포지움, 연수회를 통해서 관련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보를 교환하고, 방법을 배우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공동 관심 문제에 대하여 공동 집필을 하는 것이다. 동일한 학문 분야에서도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연구 분야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경향에서 학문분야 내에서 각 전문 분야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각 전문 분야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통합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문가의 출현이 기대된다. 같은 논리로 인간발달에 관련된 학문분야의 연구결과를 통합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전문가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학제간 접근보다는 다학제적 접근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다.

9) 실험실 중심 연구의 강조와 타분야와의 상대적 배타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심리학자들의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험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생활속의 과제와 지식영역을 더 고려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극재료, 도구 및 실험절차도 실생활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실생활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발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Anthony, E. J. (1956). The significance of Jean Piaget for child psychiatry.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29,* 20-34.

Baltes, P. B. (1983).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 Observations on history and theory revisited. In R. M. Lener (Ed.), *Developmental psychology :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Hillsdale, NJ : Erlbaum.

Baltes, P. B. (1987). Theoretical propositions of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 On the dynamics between growth and declin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611-626.

Baltes, P. B., & Willis, S. L. (1979).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cognitive functioning and social policy. In M. W. Riley (Ed.), *Aging from birth to death :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Boulder, CO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Birkel, R. C. (1987). Toward a social ecology of the home-care household. *Psychology and Aging, 2,* 1-8.

Birkel, R. C., Lerner, R. M., & Smyer, M. A. (1989).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as an implication of a life-span view of human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347-364.

Buhler, C. (1933). The social behavior in children. In C. Murchis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Worcester, MA : Clark University Press.

Carus, F. A. (1808). Psychologic zweiter theil : *Specialpsychologie.* Leipzig : Barth & Kummer.

Chandler, M. J. (1980). Life-span intervention as a symptom of conversion hysteria. In

R. Turner & H. Reese(Eds.), *Life 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 intervention.* New York : Academic.

Cicchetti, D. (Ed.) (1989). *The emergence of a discipline :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logy.* Hillsdale, N. J : Erlbaum.

Cicchetti, D. (1993).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 Reactions, Reflections, Projections. *Development Review, 13,* 471-502.

Cicchetti, D., Toth, S. L., & Bush, M. (1988).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incompetence in childhood : Suggestions for intervention. In B. Lahey & A. Kazdin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pp. 1-71). New York : Plenum.

Collins, W. A. (Ed.). (1982). The concept of development.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Vol. 15).* Hillsdale, N. J. : Erlbaum.

Coyle, J. T., & Harris, J. C. (1987). The development of neurotransmitters and neuropeptides. In J. D. Noshpiz (Ed.), *Basic handboock of child psychiatry(pp. 14-25).* New York : Basic Boocks.

Dasen, P. R. (1977). *Piagetian Psychology : Cross-Cultural Contributions.* NewYork : Gardner Press.

Danish, S. J. (1990). Ethical considerationin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developmental intervention. In C. B. Fisher & W. W. Tryon(Eds.), *Ethics in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 Emerging issues in an emerging field(pp. 93-112).* Norwood, N. J : Ablex Publishing Corperation.

Eric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Featherman, D. L. (1983). Life-span perspectives in social science research. In P. B. Baltes & O. G. Brim, Jr(Eds), *Life-span developmental and behavior(Vol. 5. pp. 1-57).* New York : Academic Press.

Fisher, C. B., Ram, G-m. B., & Colapietro, E. (1993). The Fordham University doctoral specialization in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289-302.

Fisher, C. B. (1993). The National Conference on Graduate Education in the Applications of Developmental Science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10.

Fisher, C. B, & Lener, R. M. (1994).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Mcgraw-Hill, Inc. New York.

Futterweit, L. R. & Ruff, H. A. Principles of development : Implications for easrly interven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53-173.

Gottlieb, G. (1983). The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developmental issues. In P.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pp. 1-26).* New York : Wiley.

Hall, G. S. (1922). *Senescence : The last half of life.* New York : Appleton.

Hartmann, H. (1950). Psychoanalysis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Vol. 5.*

Havighurst, R. J. (1948).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 David McKay.

Hollingworth, H. L. (1927). *Mental growth and*

decline : A survey of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 Appleton.

Horowitz, F. D. & O'Brien, M. (1989).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American Psychologist, 44, 2.*

Laidlaw, R. G. (1960). Appreciate or perish. *Ontario Psychological Associaton Quarterly, 13,* 53-57.

LeVine, R. A. (1989). Cultural Environments in the Child Developments. In Damon, W. (Ed.),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Jorssey-Bass Publishers.

Lerner, R. M. (1984). *On the nature of human plasticity*. New York : Cambridgie University Press.

Lerner, R. M. (1987). A life-span perspective for early adolescence. In R. M. Lener & T. T. Foch (Eds.), *Biological-psychological interactions in early adolescence : A life-span perspective*. Hillsdale, NJ : Erbaum.

Lerner, R. M., & Foch, T. t. (Eds.). (1987). *Biological-psychological interaction in early adolescence*. Hillsdale, NJ : Erlbaum.

Lerner, R. M., & Kauffman, M. B. (1985). The concept of development in contextualism. *Developmental Review, 5,* 309-333.

Lerner, R. M. & Miller, J. R. (1993). Integrating human development research and intervention for American children : The Michigan State University Mode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4,* 347-364.

Morrison, F. J., Lord, C., & Keating, D. P. (Eds.) (1984).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 1-20.

Nesselroade, J. R. (1988). Some implications of the trait-state distinction for the study of development over the life-span : The case of personality. In P. B. Baltes, D. L. Featherman, & R. M. Lerner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Vol. 8).* Hillsdale, NJ : Erlbaum.

Noam, G. (1991). Clinical-developmental psychology. *Newslett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1,* 1-4.

Penny, R. K. (1960). On a distinction between fact versus value in child psychology. *Ontario Psychological Association Quarterly, 13,* 92-94.

Pressy, S. L., Janney, J. E., & Kuhien, R. G. (1939). *Life : A psychological survey*. New York : Harper.

Quetelet, A. (1842). *A treatise on man and the development of his faculties*. Edinburgh : William & Robert Chambers.

Reese, H. W. (1991). Recommen dations for graduate training in child psychology. In J. H. Cantor, C. C. Spike, & L. P. Lipsitt (eds).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 Trainig for Diversity*. Norwood, N. J :Ablex.

Reese, H. W. (1993). Developments in child psychology from the 1960s to 1990s. *Developmental Review, 13,* 503-524.

Sanford, E. C. (1902). Mental growth and decay.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3,* 426-449.

Schaie, K. W. (1965). A general model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problems. *Psychological Bulletin, 64,* 92-107.

Schaie, K. W. (1979). The primary mental abilities in adulthood : An exploration in the

development of psychometric intelligence. In P. B. Baltes & O. G. Brim, Jr.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Vol. 2).* New York : Acacemic.

Schneirla, T. C. (1957). The concept of development in comparative psychology. In D. B. Harris (Ed.), *The concept of development.*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Siegel, I. E., Cocking, R. R. (1980). Editors Messag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 i-iii.

Sroufe, L. A. (1984).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development. In K. R. Schere and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pp. 109-128). Hillsdale, NJ : Erlbaum.

Sroufe, L. A., & Rutter, M. (1984). The domain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17-29.

Super, C. M. (1982). Secular trends in child development and institution of professional disciplines. *S. R. C. D. News letter, Spring,* 10-11.

Tetens, J. N. (1777). *Philosophische versuche uber die menschliche natur und ihre entwicklung. Leipizig : We idmanns Erben & Reich. perspectives.* Hillsdale, NJ : Erlbaum.

Werner, H. (1948). *Comparative psychology of mental development.*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White, S. H. (1991), Graduate Training in the Fourth Establishment : Tradition and Change in the Study of Human Development, In Cantor, J. H., Spiker, C. C., & Lipsitt, L. P. (Eds.)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 Training for Diversity.* Norwood, N. J : Albex.

Wolff, P. (1960).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Jean Piaget and psychoanalysis. *Psychological Issues, 2. (1, Monograph No. 5).*

Youniss, J., (1983). Beyond ideology to the universals of development. in Kuhn, D. & Meacham, J. A. (Eds), *On the development of developmental psychology. Contributions to Human Development, vol. 8.*

Zigler, E. (1980). Welcoming a New Journa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 1-6.

Zigler, E. (1989). Forword. In Ciccite, D(Ed). *The Emergence of a Discipline :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Hillsdale, N. J : Erlbaum.

Zigler, E. F. & Finn-Stevenson, M. (1980).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In Borstein, M. C. & Lamb, M. E. (eds.), *Developmental Psychology : An advavced Textbook,*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人間發達研究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relopment
1994. Vol. 1, No. 1, *1－19*

Developmental Psychology : Today and Tomorrow

Choon-Jae Lee
Department. of Psychdogy
Catholic University

The history of developmental psychology was briefly reviewed. The study of human development has been elaborated in three coorperative research programs : the child study movement between 1894 and 1904; the child development movement in 1920s and 1930s; and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from 1950s to today. White(1991) suggested the fourth establishment of developmental psychology, which will more and more be the study of social development. To serve social needs to solve social problem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have been emerged. Tasks of developmental psychologist in Korea were suggested.

Key Words : developmental psychology · child study movement · child development movement ·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intervention · interdisciplinary approach

토론 : 발달심리학의 오늘과 내일

유 가 효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이춘재 선생님께서 인간발달학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현황을 개관하시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좋은 방향 제시를 해주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아동발달, 아동심리학이 본래 실용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나 한때 실험심리학의 우세로 말미암아 엄밀한 과학적 방법, 이론 연구를 중시하는 경향이었다가 이제 다시 실제적인 적용과 현실 문제의 해결, 정책에 대한 반영 쪽으로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요구되어지는 변화일 것 같다. 그리고 다학제적 연구의 유용성을 언급하였으나 한편으로 다학제적 연구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견해도 소개하였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학회가 풀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어느 특정 학문이나 관점의 우위, 또는 지배보다 타학문 분야에 대한 존중과 다양한 관점, 방법론의 수용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 인간발달학의 동향에 대한 검토가 우리의 학문적 방향설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발표자가 고찰해 준 여러 문제들과 관련하여 중복을 피하면서 토론자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 인간발달학회가 힘을 모아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토론자 본인은 이 시점이 우리의 실학이 필요한 때, 즉 우리가 축적한 학문적 지식체계 및 그것이 우리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던가를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현실적인 적용과 문제해결의 필요성, 또 그에 대한 대중의 욕구는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심각하게 증대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실용화의 전제로서 우리의 현실에 괴리감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인간발달이론과 지식이 그 동안 축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서구 학문이 도입된지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안팎으로 세계화가 주창되고 있다. 그 동안 전반적으로 우리의 학문풍토는 서구의 개념과 용어로 이해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서구의 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론검증을 하는 학구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또 그것에 학문적인 권위를 인정해 왔다. 앞에서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서구의 인간행동 및 발달이론은 주제의 선정, 개념정의, 연구방법, 결과의 해석에 있어 서구 사회 백인 중산층 문화의 가치와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

근래에 들어 서구의 횡문화심리학자(cross-cultural psychologist)들(Berry, et. al., 1992) 스스로가 인간발달연구의 기초학문 구실을 하는 심리학이 어느 학문분야보다 서구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C동안에 학문으로 정립되어 전세계에 퍼져 나가게 되었는 바, 서구 산업사회에서 유래되고 실행되어 온 학문 내지 전문직인 심리학이 비서구사회에 팔려지고 시험되어져 결국 비서구사회는 소비자, 피험자의 역할을 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서구의 인간발달학은 전세계에 적용가능한 인간행동과 발달의 보편성을 기술하는 이론체계가 아니라 서구문화의 상황에서 검증되고 정교화되어온

서구사회의 토착심리학(indigenous psychology)에 불과하며 서구의 심리학이 제공하는 바와 다른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심각한 부적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각 사회는 특정 문화적 전통에 기초한 토착심리학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각 사회가 그 자신의 심리학, 즉 토착심리학을 발달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도 개개의 토착심리학들이 보편적인 인간이해의 심리학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포스트모더니즘 심리학자들(Kvale, 1992)은 보다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는 바 그들은 근대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기본 가정들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여러 학문분야, 여러 부문에서 다종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리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역시 여권주의 심리학자, 비판심리학자, 구성주의자, 후기실증주의자, 공구성주의자, 해석학적 심리학자, 생태심리학자들의 사고에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는 바 그것의 일관된 성격은 근대정신의 비판적 해체와 새로운 것의 모색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들은 심리학이 서구의 근대정신의 소산이며 서구의 근대정신이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는 인간중심주의,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의 분리,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합리주의), 진리의 보편성, 객관성, 가치중립성에 대한 신뢰, 경험적인 방법에 대한 신뢰(실증주의), 과학적 지식의 축적을 통한 진보와 인간해방이라는 지구상의 유토피아를 가정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정신의 가장 충실한 구현으로서 심리학은 고립된 개인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인지든 동기든 정서든 행동이든 탐구할 수 있는 분리된 내용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해왔다. 또한 진리의 보편성, 즉 원리와 법칙이 인식 주체의 초월적 이성의 고구를 통해 드러난다는 신념 하에 서구의 이론이 발달의 보편성을 설명할 뿐 아니라 전세계에 적용 가능하리라고 생각해 왔다. 진리의 객관성, 가치중립성에 대한 신뢰로부터는 사실과 가치는 분리되어야 하며 그것이 철학으로부터 심리학이 분리되어진 중요한 점이고 연구자의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통해 사실의 구명과 과학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식이 대상 그 자체의 관찰로부터 나오며 동일한 자로 잴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경험적인 방법을 진리와 빛에 이르는 보증수단으로 믿고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통제된 실험방법을 선호해 왔다.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심리학의 기본 전제들이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인류학 및 횡문화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아동발달의 주류로 통합하지 못한 이유의 배경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다학제적 연구 및 토착적 인간발달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이러한 틀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포스트모던 심리학자들의 주장들은 우리 현실에서도 음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모던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독특하고 고립된 개인으로 개념화하고 추상적인 정신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은 16C 유럽에서 시작된 인간에 대해 생각하는 하나의 문화적, 역사적 방식일 따름이라고 말하며 고립된 개인과 이성의 존재, 육체와 분리된 정신의 존재, 세계와 개인의 양분을 반대하면서 정신이든 행동이든 별개의 것으로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또한 진리의 보편성보다는 맥락(context)에 대한 고려를 주장하는 바 진리란 관점(perspective)의 문제일 뿐이라고 본다. 인지적 과정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유사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가정에 반대하여 문화와 정신은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현실의 언어적, 사회적 구성에 주목하고 사회적 상호의존성의 체계로서 언어를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지역적 맥락(local context)과 관계망 속에서 자아(self)의 상호관계에 초

점을 둘 것을 말한다. 과학적 지식의 가치중립성의 가정이 신화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지식의 사회적 기초와 지식과 권력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사실과 가치가 분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허구이며 연구자들이 수집하는 사실로서의 자료에는 이미 불가피하게 연구자의 관점이 스며들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경험적 연구방법을 오도하는 정당화장치로 보고 다양한 방법을 제안한다.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인본주의 심리학이 각각 실험실 속의 고립된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자아를 비역사적, 비사회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삶과 유리되었으며 오늘날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통찰은 경험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아닌 철학, 문학, 예술, 인류학에서 발견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아직 심리학 분야에 있어서는 그 기저를 흔드는 급진성으로 인해 예술이나 인문학, 사회학, 인류학, 교육 및 정치학 분야에서와 같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인 실용분야에서 일하거나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는 크게 호응 받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근대심리학의 주류에 대한 비판으로서 주변적이었던 관점에 대해 외적인 합법화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상과 같은 문화심리학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한 서구심리학 스스로의 한계노정은 자구적, 보완적 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서구학문을 절대적인 준거틀로 삼아 온 우리에게는 많은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우리 자신의 인간발달학을 발달시켜야 할 당위성은 우리 사회 내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밖으로부터도 오고 있는 것이다. 서구학자들의 비서구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들이 우리의 것은 어떠한가를 물어 올 때 서구의 이론이 대부분 우리의 사회에서도 입증되었다는 답변은 오히려 그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자가 제시하신 내용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일본학자들과 인도의 학자들은 독자적인 이론구성을 통해 이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토론자는 나름대로 인간발달의 연구에서 우리의 현상에 대한 파악과 대안적 이론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서구의 이론과 개념에 의한 연구는 연구의 종료가 아니라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역사적 현실과 관련시켜 볼 때 학문의 도입단계에서 외국의 이론과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여지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서구이론의 보편성을 신봉한 나머지 이론을 입증하는 결과가 나오면 안도하고 간혹 차이나는 결과가 나오면 당황하거나 또는 간단히 문화적 차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던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되어야 할 심리학적 현상과 그 현상의 기술, 해석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지역적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외국 이론의 증명에 대한 관심보다 연구과정 및 결과에서 드러나는 차이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우리의 현상에 대한 연구를 거기에서부터 출발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흔히 이론에 의해 이끌어진 연구는 더욱더 문화적인 왜곡이 이루어지기 쉬운데 그것은 연구주제 선정, 개념정의 자체가 이미 가치부여된 것이고 또한 개념과 그 개념에 대한 정의, 도구,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변인간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증된 것보다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천착해서 그것을 파고들어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것의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행해진 연구들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는 것도 연구문제를 찾는 데 유용하리라고 본다.

둘째, 고유의 이론과 개념발굴이 필요하다. 이는 고전문헌의 내용 가운데 인간발달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것 뿐 아니라 비판적 해체 및 재해석을 포함할 것이다. 그밖에도 전통적 생활양식이나 민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의 추출과 일반 사람들, 부모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이론들, 가령 그들의 자녀양육행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간이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인은 나름대로 인간의 심리현상,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틀, 심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 문화 속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는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일련의 명제들과 그것이 그 문화 속의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체계를 그들의 입을 통해 어떻게, 왜를 듣는 것은 고유의 이론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심리학적 의미를 가진 우리의 고유언어, 일상용어를 재발견하여 학문적인 용어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의 다양화와 인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는 실험연구나 종래의 태도,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의 형태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심층면접, 질적연구를 통해서 접근될 수 있다. 또한 실제적, 경험적 데이터에 국한시키지 않고 역사적 연구, 인물 연구나 소설분석도 유용할 수 있다. 특히 형성소설(buildingsroman)은 그 시대, 그 사회 속의 인간발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mass media 분석 및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주는 지배적인 언설, 담론(discourse)분석도 가능하다.

넷째, 우리의 삶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주목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한 행동과학을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현실상황과는 비교적 무관한 이론적, 학구적인 연구에 더 높은 위신을 부여한 점이 없지 않다. 학문적 종속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문제지향적, 응용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수입된 서구심리학이 현장에 적용되어질 때 사회문화적 전통 및 사회적 요구에 의해 어떻게 문화적 변형과정을 거치는지도 탐구해 볼 과제이다.

다섯째, 우리의 연구주제와 개념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가치의 은폐보다는 적극적으로 가치를 드러내는 연구활동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Kuhn(1970)을 위시한 과학철학자들의 오랜 주장에서나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바와 같이 가치의 표방과 그것에 의한 적극적인 현실구성, 새로운 문화운동이 요구되어진다. 현재상태를 이해하고 인간발달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며 그에 따른 발달 프로그램의 계획, 수행,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유이론을 찾아내고 발전시킨다고 해서 바람직한 최종상태가 반드시 전통적 가치의 고수일 수는 없으며 사회문화적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로부터 새롭게 도출, 합의되어야 할 상황이다.

여섯째, 이상과 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학문공동체의 협력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인간발달학회의 창립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참 고 문 헌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Gergen, K. J. (1992). Toward a postmodern psycholgy. In Kvale, S., *Psychology and Postmodernism.* Sage Publications.

Kuhn, T.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vale, S. (1992). Postmodern psychology:A contradiction in terms?. In Kvale, S.(ed.), *Psychology and postmodernism*. Sage Publications.